

월요광장

통일과 청산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북한의 인권문제도 국제사회의 중대한 관심사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1일 북한인권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으로 시작된 북한의 인권탄압은 악순환의 연속이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 탈하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다 보니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장소이동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위반하면 반국가범죄자로 다스려 공개 처형 등과 같은 반인륜적 형벌을 부과한다.

아무리 순치된 북한 주민이라고 하여도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군주를 짐승으로 받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역사상 절대 권력을 장악한 전제군주도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왕좌에서 축출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이처럼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정권 유지와 체제 존속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만 북한정권의 몰락을 속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이다. 1990년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붕괴의 혼란을 겪던 시절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의 붕괴도 멀지 않았다고 예견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가치를 높이 세우며 고난의 행군을 강행한 결과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급기야 핵무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이다.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하여 그들이 열망하던 핵무기 보유를 목전에 두고 있다. 북한 헌법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고 세습되는 봉건왕조의 존속을 핵무기가 보장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는 인류공동체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만일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정권이 붕괴되면 우리민족의 소원대로 대한민국은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을 아우르는 완전한 통일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이를 고스란히 흡수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역학구도에 과분한 탓이다.

독일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2차 세계 대전의 4대 전승국이었던 미, 영, 프, 소의 승인을 전제로 하였듯이 대한민국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완전히 지배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 같은 한국전쟁 참가국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남북한 주민들은 단일민족임에도 불구하고 60년 이상을 체형이 달라질 정도로 이질적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생활하여 왔다. 이러한 남북한 주민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급선무는 북한정권이 저지른 과

거의 불법행위를 평화적으로 청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과거청산 방법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 묵인하는 방법이다. 둘째 사면하는 방법이다. 셋째 숙청하는 방법이다. 넷째 재판하는 방법이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성을 갖춘 합리적 방안은 넷째의 재판의 방법이다. 그 이유는 재판에 의한 과거청산만이 주체와 대상자는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정당한 기준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 독일은 재판의 방법으로 동독의 불법행위를 성공적으로 청산하였다. 대한민국은 독일과는 달리 동독정권의 전횡을 치른 경험이 있다. 또한 북한체제는 동독의 사회주의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여 왔다.

이 점은 통일 한국이 완전한 민족통합을 이루어내는 데에 수많은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일 한국의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과거청산 방법은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문명적인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은 이를 위하여 가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의 수집 등을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차분하고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주시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비리 실태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금융기관에 발목이 잡혀 협세를 남비하고, 거액의 수수료와 알선료, 공무원과 업자간의 검은 뒷거래는 북바전 그 자체나 다를 바 없다.

광주지검 특수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나주시 산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산단 추진 과정에서 B증권으로부터 지난 2011년 20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 등으로 무려 342억 원이나 뜯겼다고 한다. 나주시는 2년이 지난 5월부터 6.5%의 이자를 다시 물어야 하며, 사업이 지체되면 더욱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임성훈 시장은 투자자문회사에 77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회사는 임 시장 부인이 발행한 30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사들였다. 특히 사업을 총괄한 행장 6급 김모 전 팀장은 자본회사 대표로부터 5만 원권으로 2억 원과 승용차를 받은 것도 모라자 여배우 H씨

법조칼럼



이윤우 광주지검 형사부 검사

이습우화 중에 해와 바람의 나그네 외투 벗기기가 이야기기 있다. 해와 바람이 누가 더 센지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 보자고 내기를 했는데 결국 해가 이겼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해는 어떻게 내기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나는 이 이야기를,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강한 외투의 힘이나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해는 나그네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사로 일하다 보면 온갖 피의자를 접하게 된다. 반성하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 심지어 공격성을 내보이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누구나 쉽게 온전한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다. 왜일까?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굳이 불리한 사실을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말이다.

해와 바람의 나그네 외투 벗기기

그렇다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검사로서 어떻게 해야할까? 증거가 충분하다면 피의자가 뭐라고 말하건 상관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의자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진실을 찾는 과정은 비유하자면 직소퍼즐(그림 조각 맞추기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다. 현실에서는 잃어버린 조각이 많다. 흩어진 조각을 맞추기 전에 잃어버린 조각을 전부 찾아내는 것이 일단 큰 어려움이다. 몇 개가 빠진 나머지 조각들 만으로도 퍼즐을 맞춰 그림을 대충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일단 진심의 커다란 줄기는 알아냈다고 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러나 역시 온전한 진실을 찾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를 하다 보면 피의자의 말이 중요한 순간이 있다. 피의자는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예컨대 왜 사람을 살해했는지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말해주지 않으면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짐작할 뿐이다. 그럼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피의자도 대충 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으면 검사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면 모를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는 피의자들도 있다. 신기하게도 말이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쁜 잘못을 했던 피의자라도 사람 자체가 100% 악인은 아니다. 다른 평범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사를 받는 그 순간에 어떤 내적인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조사한 경험 중에 상반된 두 사례가 있다. 하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역대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였다. 구속되어 왔던 그 피의자는 도망간 주범의 친동생이었다. 친형과의 공모범죄가 명백했음에도 친형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매우 불량한 조사 태도를 보여 당시 화가 났었다. 증거를 들이대면서 강하게 추궁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피의자로부터 속 이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다른 하나는 직업소개업을 하던 중 받은 소개비를 횡령하고, 종업원 아가씨에게 자기 대신 처벌을 받도록 수사기관에서 거짓 조사를 받게 하고, 스스로는 법정에서 위증까지 했던 피의자였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재판을 받던 중이었고 전과도 많았다. 조사 당시 역시 예상대로 오랜 시간 완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러나 계속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물어봤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왜 이 사람이 부인할까?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런 범행을 했을까? 실제로 피의자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이 들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말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증거들에 의하면 000씨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보니 000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오래돼 기억에 혼동이 있는 게 분명해요. 내일 재판도 있어 머릿속이 복잡한 모양인데 원하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줄게요. 원하면 다음에 와서 다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차를 다 마신 피의자가 “검사님, 오늘 그냥 조사 받고 가겠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 할게요”라면서 감춰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물론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앞의 사례에서의 필자는 이습우화에서 바람과 같았던 것이고, 뒤의 사례에서는 해와 같았던 것이다. 피의자로부터 진짜 속마음을 듣고 나면 그 말을 듣고 기소를 해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아낸 것 같아 뿌듯하고 여운이 오래 간다.

이습우화의 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이다. 오늘도 높이 쌓인 기록 속에 파묻혀 시간을 보내지만, 그 속에서 진실을 찾고 사람 마음을 얻는 길을 찾아본다.

기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초대



윤병신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80여일간 세계 5대 연안습지로 등록된 순천만에서 개최됩니다. 그 동안 도민의 꿈과 자연생태를 융합한 1,112천㎡에 23개국에서 참여한 가운데 83개의 특색있는 작은 정원을 꾸며, 전 세계인이 추억을 담을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행복으로 이어지는 '지구의 정원'을 정성과 지혜를 모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창조해 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를 주차와 편의휴게시설, 숙식 등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원박람회가 탄생하기까지는 갑론을박을 반복하면서 토론회를 거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만들어 해외에까지 흥

보해 오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순천시민의 흥과 열정을 가득 담은 “천년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3,870명의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체험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통 문화와 자연의 콘텐츠가 함유되어 있는 정원이 탄생하는데 2천4백여으로 1만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고, 1조 3천억원의 생산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로 상당적인 박람회 효과입니다. 자연치유의 정원으로 이산화탄소 흡수원과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는 수목 42만 주와 초화류 622종 200만 주가 식재되어 이산화탄소를 매년 971톤 흡수하는 정원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자랑스런 순천시민은 전 세계인이 누리야 할 행복한 문화 공간의 필요성을 먼저 생각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천만 갯벌 보존은 물론 여름철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해결하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 하나로 랍사트 협약에 등록된 ‘순천만’을 보호하는 간척지 농경지에서 ‘아름다운 저류지 정원’으로 이루어낸 대표적인 자연생태계 보호공법을 적용한 창조 경제화를 이루어낸 산물입니다.

미국의 센트럴파크는 뉴욕이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식하듯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순천시 시민들의 문화와 마음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요즈음 태풍과 밤낮의 기온차 등 기후변화 대응 문제점에 대해 순천만정원박람회장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어린이들의 14만 점에 달하는 그림은 서로 융합된 175m ‘꿈의 다리’에서 가족과 함께 미래의 꿈을 확인하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등 나라별 특색을 담은 정원에는 어떤 나무와 꽃들이 자라고 있는지 살펴볼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의

력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창조경제시대를 맞이하여 나무와 초화류, 그리고 새들이 노래하는 정원에서 돈이 되는 경제적 아티어를 찾아봅시다.

전국 최초로 ‘나무은행’을 착안하여 도로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베어져 없질 나무를 활용하여 조성한 ‘메타세콰이아’ 숲길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보면서 걸어도 좋습니다. 자연치유 물질인 피톤치드, 음이온이 발생되는 숲길을 걷고,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보낼 때에 참 좋은 곳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앞으로 순천시민은 전 세계인이 정원의 가치에 대해 찬사가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가꾸어 나 갈 것입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社說

무자격자까지 타낸 농림사업 보조금

전남지역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된 각종 농림보조사업이 무자격자 지원 등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로 드러났다. 정부 보조금은 공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최근 나주와 고흥 등 도내 16개 시·군에 대한 농림보조사업 특별 감사 결과, 104건을 적발해 17억3천100만 원을 회수하거나 시정하고 95명을 징계 등 조치했다. 농림사업 보조금은 농업의 기업화와 농산물의 관료 개혁 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출자금 1억 원, 농민 5명 이상이라는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 지원도 수도룩했다고 한다. 실제, 광양의 한 법인에겐 출자금 1천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억1천만 원이나 지급했고, 일가족 영농법인 3곳도 7천만~1억8천만 원이 지원됐다.

또, 지난 5년간 일선 시·군의 중복·편

중 지원 비율이 평균 17.2%에 이르고, 가장 높은 곳은 해남으로 무려 37.8%나 됐다. 심지어 11차례 17억 원, 10차례 11억 원을 받은 법인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수와 무안, 완도, 신안 등 4개 지자체는 소규모 농가(2ha)가 아닌 대농(大農) 9명에게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지원했다. 무안 등 5개 군은 대상자 결정도 전에 보조금을 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진 영농 구원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집행된다는 건 그야말로 형세 낭비다. 전남도가 ‘농림사업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뒤늦은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부당 지원에 따른 보조금 회수와 함께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보조금이 공짜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나주산업단지 개발 ‘비리 백화점’이라니

나주시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비리 실태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금융기관에 발목이 잡혀 협세를 남비하고, 거액의 수수료와 알선료, 공무원과 업자간의 검은 뒷거래는 북바전 그 자체나 다를 바 없다.

광주지검 특수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나주시 산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산단 추진 과정에서 B증권으로부터 지난 2011년 20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 등으로 무려 342억 원이나 뜯겼다고 한다. 나주시는 2년이 지난 5월부터 6.5%의 이자를 다시 물어야 하며, 사업이 지체되면 더욱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임성훈 시장은 투자자문회사에 77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회사는 임 시장 부인이 발행한 30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사들였다. 특히 사업을 총괄한 행장 6급 김모 전 팀장은 자본회사 대표로부터 5만 원권으로 2억 원과 승용차를 받은 것도 모라자 여배우 H씨

와 술자리까지 주선 받았다고 하니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배임과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만 임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6명,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 임직원 11명 등 17명에 이른다.

나주 산업단지는 이러한 불법과 비리에 따라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며, 나주시의 재정 과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 1년 예산이 4400억 원인 상황에 2000억 원을 감당하기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시의회 의결과 타당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한 나주시와 임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정부와 전남도는 산단의 조성 과정에 불법과 비리가 파고 들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투자 효율성 판단, 자금 지원, 전문가 파견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산단을 추진 중인 도내 18개 시·군들도 나주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無等鼓

김경욱 단편소설 '장국영이 죽었다 고?'의 이혼남은 채팅을 통해 '이혼녀'와 대화중을 한다. 채팅중 그녀가 말한다. '장국영이 자살했어요.' 순간, '이제 망자가 된 한 배우에 대한 이혼녀의 사소한 기억의 연대기는 시신 한번 마주친 적 없게 분명해 낯선 사내에게 공유된다.'

배우 장국영과 그의 영화 '아버정전'은 두 사람의 오래된 기억을 불러낸다. 그리고 그 기억은 또 다른 이들과 공유된다. 어느날 '발 없는 새'가 보낸 메일이 도착하고, 이들은 10여년 '아버정전'이 상영됐었던 충무로 한 극장에 모이든다. 검은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장국영이 홍콩 만다린 오리엔탈호텔 24층 객실에서 투신한 날은 2003년 4월 12일, 만우절이었다. 중국발(發) 사스가 기승을 부리던 봄날에 날아든 소식은 진짜 '거짓말' 같았다.

장국영을 기억하는 건 소설속 등장인물만큼은 아닐 거다. 소설 밖 사람들도 그와 그의 영화들을 통해 아련했던 한 시절을 소환한다.

'세상에겐 발 없는 새가 있다더군. 날'

장국영 사망 10주기를 맞아 홍콩형지의 추모 열기가 뜨거운 모양이다. 그의 동성 연인이었던 당학덕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공개되고 타임스퀘어에 반신상도 세워졌다. 또 전 세계 팬들이 접은 190만 119개의 종이화도 전시됐다. 국내 팬클럽 '장국영 사랑'은 '해피투게더' 상영회를 열었고 그의 흔적을 찾아 떠난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국영' (주성철 저·흐름출판)도 출간됐다.

오랜 세월을 거슬러 그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것,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게 아닐까.

/김미은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문 화 생 활 부 2200-66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문 화 서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 론 매 체 부 2200-621	광 고 미 케 영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제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지 이 털 팀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